



# Hi, 통일 신문

발행호 : 제3호  
 발행일 : 2019.9.17.(월)  
 발행인 : 정음여고 2학년 평화인  
 지도교사 : 이춘주

## ‘Hi,통일동아리’ 통일인문학 달밤 콘서트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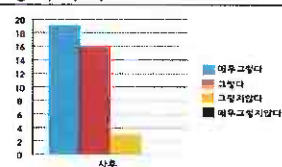


7월 16일 16:30 ~ 22:30까지 토론학습실에서 ‘통일 인문학 달밤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통일인문학 도서 읽기 신청을 한 학생 24명과 함께 3인 1조로 통일인문학 독서 발표회, 통일 강연 듣기, 통일영상 시청하기, 통일엽서 쓰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통일인문학 콘서트는 통일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북한의 실생활은 어떠한지, 우리보다 먼저 통일이 된 독일의 통일을 통해 배울점은 무엇인지 등 통일을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보고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성찰해 보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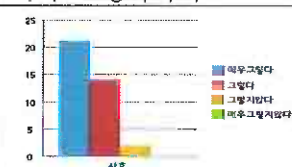
## ‘Hi, 통일’ 동아리 활동을 통한 평화통일역량 신장 설문 조사 결과

‘Hi, 통일’ 동아리는 통일이 되었을 때 반갑게 인사하며 맞이할 수 있는 평화통일역량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평화통일교육을 실천하였다. ‘Hi, 통일’ 동아리 통일교육은 이춘주선생님의 도덕수업 반인 2학년 1,2,3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4.27 DMZ 평화 손잡기, 철원 DMZ 평화 순례길, 학교축제 통일부스 봉사활동, 통일인문학 달밤 콘서트’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아래는 설문 참여 학생 38명의 응답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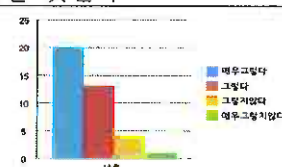
1. 평화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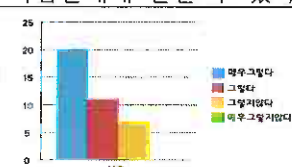
2. 북한사람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나?



3. 평화통일 행사에 참여할 것인가?



4. 통일의 필요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나?



## 백합인, 외부기관 주최 통일행사 참여 통일외지 나누고 돌아 와

- ◆ 이규민, 프랑스-독일 민주시민교육 국외현장체험 활동 다녀와
- ◆ 김설희·강효, 전국 통일리더캠프 참여
- ◆ 박지원, 5.18 전국고등학생 토론회 은상 수상

우리학교 학생들이 여름방학 중에 외부기관에서 주최한 통일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통일외지를 나누고 돌아왔다.

이규민(2년)은 7.15.~7.22, 전라북도교육청이 실시한 프랑스-독일 민주시민교육 국외현장체험으로 프랑스 시민혁명 유적지와 독일의 분단과 통일 관련 유적지를 다녀왔다. 독일의 유적지를 체험하고 느낀 점은 독일과 우리나라의 분단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방식도 독일과는 다른 우리의 상황에 맞는 통일 방안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일은 꼭 실현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념을 갖게 된 여정이었다고 체험 소감을 밝혔다.

김설희(2년), 강효(3년)는 8.8~8.9,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주최한 전국 고등학생 통일리더캠프에 참여했다. 전국에서 온 110명의 고등학생들과 통일 시대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과 체험, 토론을 나누며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해 확신하는 기회가 되었고, 남북이 서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함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참석자들이 통일에 대한 자기 의견을 활발하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통일리더의 의지를 강화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박지원(2년)은 8.9~8.11, 2박3일 간 광주 5.18 교육관에서 진행된 전국고등학생 토론회에 참여하여 ‘한반도 통일, 평화의 약속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경연을 펼쳐 은상(전라북도교육감상)을 받았다. 민중항쟁 정신 계승 및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공동체 정신 함양을 목표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는 통일을 주제로 토론회가 실시되었다. 올 해 우리학교 ‘Hi, 통일’동아리에서 습득한 통일지식을 토론장에서 발언한다면 틀림없이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통일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통일에 대해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고 싶어서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올해 대회에서는 서울에서 한라까지의 학생들이 참가했지만 다음 대회에는 백두에서 한라까지의 학생들과 함께 열린 토론을 하길 기대한다고 통일대회 참여 소감을 밝혔다.

## 평화통일 활동가 초청, 북한 이해 특강 실시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전북겨레하나의 김성희 사무총장의 북한 이해’ 특강을 통해 분단의 원인, 객관적인 북한 이해, 남북의 공통점과 차이점, 남북의 다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북한 이해 특강을 듣고 난 친구들의 생각을 나의 생각과 비교하며 읽어보자.

통일인문학 달밤 콘서트를 준비하며 ‘통일을 상상하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북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전북겨레하나의 김성희 사무총장님이 특강해 주신 내용에도 책의 내용이 나와 더욱 흥미있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다. ‘통일을 상상하라’ 책에 개성에서 한 달 살기라는 내용이 있었고, 북한에 가는 법이 나와 있었다.

북한에 여러번 가 보신 사무총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과 비교하며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또 전에 통일교육에서 들었던 ‘조선노동당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나타내는 물건은 무엇인가?’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맞추며 복습하는 느낌도 나고 더욱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북한에는 정당이 하나 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3개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평양의 핫플레이스가 어디인지 사진을 첨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어 좋았다. 사진을 보니 나도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북한에 놀러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북한에서 유행하는 구호인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김찬희)

직접 북한에 다녀오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더 와 닿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운 것이 북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을 DMZ에서 보고 왔긴 하지만 평양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간접적이지만 그래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도 많이 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요즘엔 그런 말을 하거나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점점 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통일이 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다.

새롭게 안 사실은 북한의 정당이 3개라는 것이고, 조선노동당이 정권을 잡고 있고, 2개의 정당은 조선노동당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웠다.(김민경)



<전북겨레하나 김성희 사무총장 특강 모습>

기존의 통일교육과는 달리 직접 북한을 다녀온 경험담을 중심으로 설명해 나갔다는 것이 신선했다.

나는 북한이라는 곳은 누구나 갈 수 없는 곳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북측에서 초청을 받고 그 초청장을 가지고 통일부에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북한 안내서’라는 책에서 북한의 발전된 모습을 사진을 통해 알아본

경험이 있어 이 특강을 이해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사무총장님께서 질문하시는 것마다 내가 답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이라는 곳에 다가가는 느낌이 많이 받았다.

특강을 해주신 김성희 사무총장님은 평화통일교육 문화산업을 통해 통일인식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다. 우리의 통일을 위해 간접적으로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어쩐지 아름답게 보였다.(고수정)

### <북한 소식>

#### 북한, 레바논 꺾고 월드컵 예선 첫 경기 승리

북한이 9월 11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첫 경기에서 레바논을 꺾고 승리했다. 북한은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한국, 투르크메니스탄, 레바논, 스리랑카와 함께 8조에 속했으며, 각 팀과 2차례씩 경기를 치르게 된다. 같은 조에 속한 남측과 북측은 10월 15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맞붙는다.

남북 분단 74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이 변한 북한의 제도와 현 상황에 대해 배웠는데 지난 번 했던 통일교육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복습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거의 매년 200명이 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모르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교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북한에 갔다 오신 분들을 만나면 그들은 또 하나의 세상인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 안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도 꼭 북한과 남한의 승인을 받아 북한에 다녀오고 싶다.(유승희)



통일인문학 독서 발표회, 통일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은?



통일인문학 독서 토론의 장면



통일인문학 독서 토론의 장면



통일인문학 독서 토론의 장면

통일에 관한 다양한 책을 읽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친구들이 발표하는 것을 듣고 웃기도 하고, 통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처음엔 통일은 무겁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으며 발표를 준비하고,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부터 통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준비한 발표를 들으면서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정말 좋았다. 통일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많이 고민을 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통일된 국가를 선물하고 싶다고 느꼈다.(박지은)

통일인문학 독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라는 책을 자세히 읽게 되었다.

'진천규 작가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전달 받았기 때문에 독서 발표를 통해 친구들에게도 그 생생함을 그대로 전해 줄 수 있었다.

발표 형식이 자유 형식이라 처음에 형식을 정할 때 고민이 많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흡쇼핑이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좋았다.

발표 때 '진천규' 작가 역할을 한 친구의 대사를 들으면서 그의 통일에 대한 주장과 생각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은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다.(유승희)

<통일인문학 독후감>

김현서

1. 도서명 : 청소년을 위한 통일 인문학

2. 줄거리 및 감상

이 책은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일까?'에서부터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사람 중심의 통합을 향해' 나아간다. 먼저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통일론을 바꾸기 위해 기존 통일 방안의 한계를 자세히 보여주고, 과정으로서의 통일, 사람의 통일을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던 독일을 예로 들어 체제 중심의 통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 사회과학적 지식인지, 인문학적 감수성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을 쓴 글쓴이는 사회과학적 지식보다 통일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사람들의 상처와 적대를 치유하기 쉽고, 사람들의 통일을 향한 희망과 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인상적인 키워드 : 사람의 통일

우리는 지금 체제 통합을 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의 통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체제 통합의 바탕이 사람의 통일인데도 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일론을 새롭게 바꾸어서 사람의 통일을 중시하는 장기적으로 통일을 이해하는 통일론을 가질 필요가 있다.

4.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질문 :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목표 달성과 같은 '일회적 사건일까?'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과정일까?

<통일인문학 독후감>

한소진

1. 도서명 : 통일을 상상하라

2. 줄거리 및 감상

이 책은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편마다 서술자가 다르다. 하지만 다 다른 서술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통일을 상상한다는 것이다. 각자 다른 시선으로 통일에 대해 서술하는 이야기들은 다른 서술자로 넘어갈 때 마다 새로워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필 수 있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이 책의 주제인 '통일에 대해 생각하기'였다. 통일을 하게 된다면 경제력, 자원 증가 등 다양한 장점들이 생기고, 우리 민족의 통합을 이룰 수 있지만, 서로의 문화와 조금은 다른 언어들 등 서로의 차이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막연히 통일을 해야한다기 보다 통일에 대해 더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날이 오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활동들을 해야 한다.

3. 인상적인 키워드 : 끊어진 철도, 닫힌 상상력

DMZ가 생기고 철도가 끊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생각하는 일 또한 끊어져 버렸다고 생각한다.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를 남과북으로 부르고 다른 민족 마냥 구는 행동들이 장애물이 된 것 같다.

4.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질문 : 우리는 통일을 바라면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정전 65년의 전쟁의 상처,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6.25 전쟁 후 남북에서 아이들에게 적대시하는 교육을 시키고 그게 정당화된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싸움은 오해를 더 크게 만든다' 이 말이 적대시하는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말 같았다.

현재 인터넷에서 가짜뉴스가 빨리 퍼지듯이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시대에 사실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내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영상에서 '하나의 언어를 쓰는 하나의 민족이었다'는 문장이 나왔는데 이 문장이 가장 인상 깊었다.

우리는 한 민족인데 무엇이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었을까? 현실적으로 당장 통일이 된다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통이(서로 다른 체제가 소통하는 상태)를 이루어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떨까?(손채연)



주최 | 통일 | MBC 스페셜 | 정전 65년의 전쟁

등록일 : 2019-02-28  
조회수 : 2390  
발행처 : MBC  
재생시간 : 50분 25초

정전 65년간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시청하였다. 중간중간 이춘주 쌤이 학생시절과 관련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다.

실제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북한 아이들과 어른들의 인터뷰도 나와 있어 그 때의 시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 아이들에게 미국인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주입시켜 울분을 토하는 장면에 제일 많이 놀랐다.

한민족인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갈등이 생기도록 체제경쟁을 해 왔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송미선)

시대 순으로 남북통일에 관한 영상을 시청했다.

분단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서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욕하며 헐뜯었다. 북한 학생들은 남한 학생들이 돈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눈을 파는 소녀들이 있다는 소문도 퍼졌다.

그리고 양국의 학교 운동회에서 전쟁을 연상시키는 종목을 아이들에게 시켰다. 포복을 하며 총을 쏘고, 서로 싸우고 수류탄을 연상시키는 것을 던지기도 하였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 이해하려 했고, 결국 스포츠 단일팀을 결성하여 우승까지 했다.

이 영상을 통해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교사가 되어 미래의 어린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다고 생각했다.(김수연)

##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통일엽서, 받으세요!>

### ◎ T.O. 외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저 손녀 민경이에요,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저에게 꼭 말씀해주시겠다고 하셨던 6.25 전쟁을 결국 못 들었는데, 할아버지께서 통일에 대해 많이 꿈꿔왔던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어느덧 고2가 되어 통일에 대해 얘기하고 통일을 꿈꾸는 나이가 되었네요,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어요, 제가 할아버지 곁에 갈 때는 할아버지가 꿈꿔셨던 '통일' 꼭 하고 갈게요.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까 위에서 저 많이 응원해 주세요, 할아버지라면 벌써 김일성, 김정일과 친구 맺고 통일과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얘기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ㅎㅎ

항상 할아버지와 함께인 손녀 민경 올림

### ◎ T.O. 기리찬에게

우리가 너무 통일을 어렵게만 느낀 건 아닐까? 앞으로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학문적으로 다가가게 아니라, 다가가서 느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 ◎ T.O. 지희에게

안녕, 지희야, 나 은별이야, 네가 부회장 준비하라, 성적 관리하라 많이 바쁘겠지만 이걸 꼭 알고 갔으면 좋겠어서 편지를 쓸게, 오늘 통일인문학 콘서트를 하면서 '통이' 라는 말을 참 들어봤는데 통일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거야,

우선 '통이' 를 이뤄서 남과 북이 협력과 교류를 하다보면 언젠가 정말 하나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우리 꼭 그날을 기다리자, 그 날이 오면 우리 유럽까지 같이 배낭여행 가는 걸로 하자, 행복하길 바래, 그럼 안녕! (조은별)

### ◎ T.O. 춘주 쌤에게

선생님,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었어요, 원래 제가 아는 것만이 통일이고 또 그 방안만 있을 거란 생각이었죠, 또 북한을 무섭게 느꼈었는데 오늘 강의와 친구들의 책 소개를 듣고 북한의 생활도 알게 되고, 북한도 남한에 대해 좋게 인식하고 있던 이야기를 듣고, 빨리 통일을 해서 북쪽 친구들과 얘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과 화해단계를 거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from 도지사 팬클럽 회장 최도이)





## 분단의 끝, 통일의 시작

김설희

2019년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주최한 통일리더캠프에 통일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싶다는 단순한 동기를 가지고 참여했다. 총 110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했고 정읍에서 온 학생은 나를 포함하여 2명이라 긴장을 한 채 참여했다.

첫날, 오전에는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더욱 생생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라산 전망대'를 걸어서 갔다. 도라산 전망대에는 큰 망원경이 있었는데 망원경을 통해 북한의 모습을 살펴봤다. 현재는 망원경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북한이지만 후에는 망원경을 통해 본 북한에 나의 발자국을 남겼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다.

오후에는 '연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눈높이 평화·통일 특강'을 듣게 됐다. 특강은 통일을 마냥 긍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해 주어 통일에 대한 여러 시각을 갖출 수 있었다. 특강이 끝난 후에는 Q&A시간을 가졌는데 진행자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통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함께 만드는 남북협력사업계획서'라는 주제로 통일된 한반도의 장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사업을 구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통일 VR체험을 했다. VR체험을 통해 한반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다. 첫날에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활동한다는 생각에 긴장했지만 교육을 통해 이곳에 온 110명의 학생들이 통일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참여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통일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짧다 짧은 1박2일 동안이었지만 통일리더캠프를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통일과 남북 문제에 대해 보다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미래 통일 한반도에서 활동할 리더로서 통일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 전국 통일리더캠프에 다녀와서

강 효

문제인 대통령의 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감동을 받았다.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사실 처음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정치 체제도 다르고 수십 년간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평화로운 통일이 가능할까?'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평화로운 통일을 만들기 위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통일리더캠프에 참여했다.

우리가 처음 향한 곳은 도라산 전망대였다. 이날은 특히 날씨가 좋지 않아서 망원경으로 봐야 겨우 알만한 정도였다. 전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개성의 위치를 알아보고 갔지만 날씨 때문에 미리 조사해 간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쉬웠다. 망원경으로 오른쪽을 보면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펄럭였고, 조금 먼 곳에선 북한의 인공기가 안개 사이로 드러났다. 나무가 우거져있는 숲을 넘어서 평야를 지나면 저 멀리에 마을이 하나 보이는데 그 마을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지금은 한없이 조용한 마을이지만 언젠가는 평화통일의 길목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후 연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로 이동해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통해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통일 후 관광, 요식업, 건축, 교통, 스포츠, IT 등을 함께 할 것이고 통일외교와 그에 따라 수많은 직업들이 생길 것이다.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 중 다수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한 비용이 다시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는 '투자'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저녁식사 후 강당에 모여 '남북협력사업계획서'를 만드는 활동을 했다. 이번 캠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이었다. 10개의 조가 각자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발표를 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 좋았다. "지금은 분단의 상징인 DMZ가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DMZ 평화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다음 날, 통일 미래체험관 견학, '통일 골든벨'을 마치고 버스에 올랐다.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통일은 우리 모두의 관심 속에 관계를 유지하며 천천히 하나의 국가로 가는 것이다. 화해협력, 남북 연합, 1국 1제 통일국가이다.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낸 시간이 길었던 만큼 서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평화로운 통일'을 이끌기 위해 나와 주변의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할 것이다.

##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참가 은상 수상 소감

- 박지원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이춘주 선생님, 이윤정 선생님, 유진희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며 반쯤 부푼 마음으로, 그러나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수상 수기를 써 나갑니다.

제18회 '5.18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의 토론 주제는 '한반도 통일, 평화의 약속인가?'였습니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에 차질이 생기는 했으나 이는 우리가 항구적인 관계로 이겨나가야 하는 문제임이 분명하므로 저만의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올해 우리 학교 'Hi, 통일' 동아리에서 습득한 지식을 토론장에서 발언한다면 틀림없이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통일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고 싶었기에 여러 고비를 이겨낼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배움은 저에 대한 한계를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저를 한계 짓지 않고 있는 그대로, 때로는 보이는 것 이상의 잠재력을 드러내게 되면서 다양한 지식 이상을 얻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서울에서 한라까지의 학생들이 참가했지만 다음에는 백두에서 한라까지의 학생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하길 기대합니다. 저의 경험이 후배들도 토론의 기쁨을 아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라북도 교육감상이라는 상을 받고 느낀 짜릿함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저 스스로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살 것입니다.

### <돌발 퀴즈>



통일인문학 달밤 콘서트에서 등장한 마스코트입니다. 마스코트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학년반, 참여자 이름>을 적어서 9월 19일까지 010-8640-3909로 보내주세요. 추천하여 20명에게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 프랑스 독일 현장체험학습기

- 이규민



나는 여러 나라의 예술을 느끼고 싶은 마음과 독일의 통일이 우리의 통일에 주는 의미를 알고 싶어 국외현장 체험학습에 참여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인권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 독일에서 교육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 등 매우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다.

체험학습 과정에서 통일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였다. 독일의 베를린장벽과 체크포인트 찰리, 브란덴부르크 문 등의 역사적 배경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통일과 독일의 통일을 비교하여 생각해 보았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은 점 하나는 독일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현실이 다르다는 점. 그래서 독일과 같은 통일 방법은 우리나라엔 어렵고 다른 통일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북한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통일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에만 잘못된 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남한에도 잘못된 점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힘을 합쳐 하나씩 고쳐나가면 더 평화로운 통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통일비용이 많이 들 경우 통일을 해야 하나? 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남북이 장기간에 걸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통일비용은 훨씬 낮아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현재 북한의 침입에 대비해 국방비를 한 해 동안 약 39조원을 쓰는데 경쟁할 필요가 없다면 이 국방비를 더 적게 사용하고 아껴서 통일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분야보다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교류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북한 예술학교와 남한 예술학교가 연합 공연을 해서 남북 간 문화차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참여한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며 통일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서로가 배려하면서 함께 이끌어가야 하는 게 통일'이다. 멀게만 느껴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은 뜻깊은 여정이었다.



**<통일을 위한 노력 함께 해요!>**

**통일교육 연대 활동, 정산중학교 통일 행사 소식**

**남북통일에 대한 생각의 변화**

정산중 조다현

정읍여고의 'Hi, 통일 신문' 을 읽기 전에는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통일신문을 읽고 난 후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통일신문 읽기 전**

체제가 달라서 통일하기 힘들다는데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나 싶었다.

**통일신문 읽은 후**

체제가 다른 것은 둘째치고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하며 통일을 했을 때 좋은 점을 많이 알게 되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통일비용이 많이 드니까 오히려 손해일 것 같았다.

통일비용보다는 현재 쓰고 있는 분단비용이 더 드는 것을 알게 되어서 빨리 통일을 하는 게 답일 것 같다.

남과 북이 통일되었을 때 땅이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는 것 외에는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았다.

북에는 자원이 풍부하여 개발하기 좋고, 남은 기술이 좋아서 통일하면 경제성장이 엄청나다고 한다.

통일 없이 그냥 다른 나라처럼 휴전선만 없애고 자유롭게 왕래하였으면 했다.

같은 민족이니까 다른 나라로 살면 안 될 것 같다.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번씩 하는 이산가족 상봉 때문에 이산가족 걱정은 하지 않았다.

이산가족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 늦기 전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만으로는 모두가 만날 수 없다.

**통일의 필요성**

정산중 김형민

요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번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가 온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그럼 왜 사람들은 통일에 집중하고 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까?

첫째는 한반도를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 남과 북이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아 분단 비용이 들지 않아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국방비가 들지 않아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둘째는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경제성장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자원이 합쳐지면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육로가 뚫리면 이전보다 쉽고 빠르게 더 많은 물건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본이 요즘 우리나라에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많이 발전한 우리나라에게 큰 타격을 입힌 것이다. 하지만 통일이 되었다면 상황은 반대가 되었을 것이다. 현재 북한 땅 지하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이 개발되어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발전을 이루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산가족을 위해서이다.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하고 부모와 형제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산가족을 위해서 꼭 통일이 되어야 한다.

6.25 전쟁 이후 분단이 된지 70년이 되어 간다. 더 늦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앙드레 말로)**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전북겨레하나’, 시민들과 손잡고 평화의 물결을....**

올해 우리학교 통일교육주간 통일수업과 통일인문학 달밤 콘서트 특강을 해 준 통일단체가 ‘전북겨레하나’이다. 전북겨레하나라는 2005년 9월 ‘우리겨레하나되기전북운동본부’를 결성한 후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평화의 물결을 일으켜 모두가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한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1945년 광복 후 남북이 서로 체제경쟁 속에서 대립하며 살아온 지 74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남과 북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통일 노력을 기울이는 분들과 단체가 있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같은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전북겨레하나가 지향하는 평화와 통일은 무엇일까?

전북겨레하나가 지향하는 평화는? 전쟁과 배제, 갈등이 없는 화목한 삶이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사랑하고 연대한다.

전북겨레하나가 만드는 통일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소통이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과정이다.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이다.



Symbol Mark

# < 'Hi, 통일' 동아리 설문조사 결과 >

## 'Hi, 통일' 동아리 활동 소감, 함께 나눠요

2018년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선언이 선포된 후 토론과 체험, 실천형 통일교육으로 학생 스스로 통일 가치와 문화를 만들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평화통일역량을 기르기 위해 올해 1학기 동안 'Hi, 통일' 동아리 활동을 하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소개해 봅니다.(학생반응은 1면에 그래프 참고)

기억에 남는 활동	'Hi, 통일' 동아리 활동 학생 소감문	통일동아리 행사 참여 학생 학부모 반응	
4.27 DMZ 평화손잡기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DMZ 500km 평화의 손잡기 행사에 참여하여 만세삼창과 함께 철조망 너머 펼쳐진 북녘을 향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였다. 종교, 이념, 성별, 신분차를 넘어 함께 손잡는 4.27 사람 피이기 행사로 분단체제를 평화의 체제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2. 북한사람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나요?
통일 부스 운영	평화통일이란 주제로 평화통일 4행시도 짓고, 통일퀴즈도 풀고, 통일백지도 만들고, 너무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다. 통일에 한발자국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 좋았다.	3. 자녀에게 통일행사에 참여를 권유할 것인가?	4.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나?
철원 DMZ 평화순례 체험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에 대해 직접 느끼는 것과 수업을 듣는 것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분단이 일어나고 있는 휴전의 장소에 가서 그 날의 역사를 알고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통일에 대한 교육과 분단의 아픔을 알게 되어 뜻깊었다.	평화통일 역량	
통일인문학 달밤콘서트	통일에 대한 심층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내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의미 있었다. 남북한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한민족이므로 다시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통일교육에 대한 학부모 설문지 소감문	
찾아가는 통일 수업	평소에 북한에 관해 관심만 있었지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지식이 많았는데 오늘 수업으로 북한의 학교 모습, 남한과는 어떻게 다른지,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통일이 된다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다.	한민족 동질성 인식력	
'Hi, 통일' 동아리 활동	정읍여고 'Hi, 통일 동아리' 뜻깊고 의미 있는 부스를 운영해 줘서 고맙습니다. 멀지만 꼭 가야 하는 길 통일을 기원하며 통일된 한반도에서 다시 만납시다. 춘주쌤과 'Hi, 통일' 동아리 평화통일 기원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행사 참여력	
'Hi, 통일' 신문 나눔 활동	정읍여고의 'Hi, 통일 신문'을 읽기 전엔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통일신문을 읽고 나서는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체제가 다른 것은 둘째 치고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하며, 통일을 했을 때 좋은 점을 많이 알게 되었다.(정산중 학생글)	평화통일 의지 실천력	